"각자의 眞我를 찾아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㉕ 알 수 없는 비밀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이름이나 글귀에 집착해서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이름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도의 눈이 가려져서 분명히 알지를 못하고 만다. 12가지로 분류되는 모든 경전은 모두 언어문자로 표현하는 말일 뿐이요. 배우는 사람이 근본 이치를 알지 못하고 표현하는 이름이나 글귀에서 지해(知解)를 내니, 이는 모두 언어문자에 의지하는 결과라 인과에 떨어져 삼계의 생사윤회를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나고 죽고 가고 머무름을 옷을 입고 벗듯이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법을 듣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사람은 형체나 모양이 없으며,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으며, 어디에도 머무는 곳이 없이 물고기가 마음대로 헤엄치듯 움직이고 있으니 온갖 방편의 시설에 응하나 작용하는 자취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찾으려면 더욱 멀어지고 구하려고 하면 더욱 어긋나버리니 이것을 비밀이라 하는 것이니라."

이 장에 와서 임제는 또 공부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점을 상기시킨다. 이름이나 글귀에 집착해서 도의 근원을 잘못 알지 말라는 주의다. 명구상의 지해는 사람의 생각이 지식적인 개념에 머물러 의식화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도를 깨닫는 장애물이라 도안(道眼)을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도(道) 그 자체는 지식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유심(思惟心)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각경(圓覺經)〉에 "사유심으로 여래의 원각경계를 헤아리는 것은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이 있다.

〈삼승십이분교〉는 부처님 말씀 전체를 수록한 경전을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경전이 비록 법을 설해 놓은 말씀이지만 이는 말로 이해시키는 설명이다. 이른바 방편설인 것이다. 선에서는 이 방편설을 곡담(曲談)이라 하며 이를 떠나 직설(直說)인 격외선지(格外禪旨)를 터득할 것을 요구한다.

인과에 떨어진다는 말은 잘못된 업을 지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다. 백장야호(百丈野狐)의 선화(禪話)에 "수행을 크게 이룬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는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고 답하여 500생의 여우 몸을 받았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不昧因果)"고 답하여 여우 몸을 벗어나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백장(百丈)을 만나기 전에는 대답을 잘못하여 여우 몸을 받았다는 것이고 백장(百丈)을 만난 후에는 대답을 바로 하여 여우 몸을 벗어나게 했다 하여 전백장후백장(前百丈後百丈) 이야기라고도 한다. 나고 죽는 생사를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한다. 고려 시대 자진원오(慈眞圓悟 · 1215~1286) 국사의 임종게에 "태어나는 것은 옷을 입는 것이고 죽는 것은 옷을 벗는 것이다(生也如着裙 死也如脫裾)"고 하였다.

'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는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법문을 들을 때 듣는 그 사람을 바로 알라고 하였다. 이는 자기 진아(眞我)를 찾으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체를 망각한 사람들을 향해 임제는 매서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임제가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 하고 무의도인(無依道人)이라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자기 정체인 '진아'이다. 선은 정체 회복의 공부다.

이 '진아'가 오온으로 구성된 육신의 옷을 입고 벗는 주인이다. 일체의 속박을 벗으나 아무 데도 의지함이 없는 자유자재한 존재로 끝없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을 발휘하는 당사자인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머무는 자리가 없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적인 위치가 없다. 좌표를 점찍을 수 있는,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정체 없는 정체가 무위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앞세워 찾으려 하면 더욱 멀어진다고 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 비밀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오염된 의식의 범부, 깨끗한 의식의 붓다



세상 속 경전읽기

㉕ 공성상(空性相)

청화 스님이 엮은 금타대화상의 〈금강심론(金剛心論〉 '제1편 일인전에 일인도 제2장 보리방편문 제3절 삼신요별(三身了別)'에, 법신(法身) · 보신(報身) · 화신(化身)의 삼신(三身)을 각각 법신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체대(體大). 진(眞). 공(空)], 보신은 원융무애지[圓融無礙智. 상대(相大). 여(如). 성(性)], 화신은 수연불변식[隨緣不變識. 용대(用大). 여여(如如). 상(相)]으로 배대하였다. 곧 법 · 보 · 화 삼신이 심 · 지 · 식(心 · 智 · 識)이며, 〈대승기신론〉의 체 · 상 · 용 삼대와 같으며, 진 · 여 · 여여(眞 · 如 · 如如)이며, 공 · 성 · 상(空 · 性 · 相)이라는 것이다.

법 · 보 · 화 삼신이 진리의 여러 측면을 인격화한 것이라면, 공 · 성 · 상(空 · 性 · 相)은 이치로 본 것이다. 수연불변식은 일진여[一眞如. 대승기신론의 일심(一心)]가 인연에 따라 오염하되[隨緣眞如], 변하지 않고 깨끗하여[不變眞如], 오염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如如相]'을 보인다. 이 '여여상[相]'의 그러한 성품[性]이 참공[眞空]인지라, 공 · 성 · 상(空 · 性 · 相)이 하나도 아니요[非一], 둘도 아니며[非二], 또한 셋도 아니다[亦非三].

삼신과 공성상의 관계를 다시 부연하자면, 진[眞. 법신, 공(空)] · 여[如. 보신, 성(性)]가 삼계육도[여여(如如).화신. 상(相). 곧 욕 · 색 · 무색계 삼계의 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 · 인 · 천의 육도(六途)]에서, 인연 따라 다르게 익어가니[隨緣異熟] 오염된 의식을 받아들이는 범부중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성품은 변치 않으니[眞性不變] 깨끗한 의식을 받아들이는 성인이요 붓다이다.

오염된 중생과 깨끗한 성인이 함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如如相]이 화신이고, 오염과 깨끗함이 한결같은 일여의 성품[一如性]이 보신이며, 성품과 모양의 본래 공한 경지[本空境地]가 법신이다.

법신은 맑은 허공[淸空心界]과 같고, 보신은 (공덕의 성품이) 충만한 바다[淨滿性海]와 같고, 화신은 바다 가운데 떠도는 거품 중생의 모습[漚相衆生]과 같으나, 실상(實相)은 공도 아니고 유(有)도 아니며[非空非有], 참붓다는 3신(三身)도 아니니, 수행을 통해 말과 글을 떠난 실제 뜻을 요해(了解)하도록 해야 한다.

〈대반열반경〉에 이자삼점[伊字三點. ∴ 또는 ∵. 산스크리트]의 비유가 나온다. 점 세 개를 삼각형으로 찍어 놓은 글자를 가리키며, 산스크리트 문자 의 발음을 음사(音寫)한 것이 한자로 '이(伊)'이므로 이자삼점이라 한다. 이는 가로도 세로도 아니고 삼각의 관계를 이루었으므로 물(物)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不一不異], 앞도 뒤도 아닌 것[非前非後]에 비유한 것이다. 열반경에서는 법신 · 반야 · 해탈의 삼덕(三德)에 비유한다. 다른 곳에서는 공 · 성 · 상(空 · 性 · 相), 법보화 삼신, 불법승 삼보, 삼법인 등이, '셋이 곧 하나이며[三卽一], 하나가 곧 셋임[一卽三]'에 비유하기도 한다.

"무엇을 이름하여 '비밀히 감춘 것'이라 하느냐. 마치 '이자의 세 점 ∴'과 같다. 만약 (가로로) 나란히 있어도 이(伊)자를 이루지 못하고 세로로 있어도 또한 (이자가) 이루어지지 않나니, 마치 마혜수라왕 [대자재천(大自在天), 색계의 맨 위에 있는 색구경천(色究竟天)에 사는 신(神). 힌두교의 시바신] 얼굴에 눈이 세 개 있는 것과 같아야 비로소 이자삼점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 각각이라면 또한 다시 글자를 이루지 못한다.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해탈(解脫)의 법이 열반이 아니요, 여래의 몸[法身]도 열반이 아니며, 마하반야(摩訶般若) 또한 열반이 아니니, 세 가지 법이 각기 다름도 또한 열반이 아니니라. 나도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 법에 안주하나 중생을 위한 까닭에 (짐짓) 이름하여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니라."

〈大般涅槃經 T0374_.12.0376c11–17, T0375_.12.0616b10–16〉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㉑ 닦음의 길 11

인욕, 평정심 찾는 것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에너지도 총량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폭발하게 된다. 예컨대 화를 참을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10이라면, 10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화를 내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심한 욕을 들었을 경우 그 에너지가 8이라면 아직 2라는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참을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5에 해당되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면, 총량인 10을 넘어서는 13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화'라는 감정을 밖으로 분출하게 된다. 이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바라밀 가운데 욕됨을 참는 수행으로 인욕바라밀이 있다. 인욕은 화가 났을 때 이를 대치하는 공부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는 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忍土)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욕바라밀은 억지로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 물론 그것은 아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치기 때문에 차라리 화를 내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수행으로서 인욕바라밀은 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공부다.

언젠가 한 바라문이 붓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다. 붓다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비유를 들어 상대를 설득시킨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바라문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한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손님이 바빠서 음식을 먹지 않고 돌아갈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자 그럴 때는 버리기 아까워서 자신이 먹는다고 답하였다. 이때 붓다는 촌철살인의 한 마디를 던진다.

"당신은 나에게 욕이라는 음식을 대접했지만,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욕은 누가 먹어야 하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진 바라문은 자신의 무례를 깨닫고 용서를 구한 다음 붓다의 제자가 된다. 자신을 향해 욕을 하는 사람마저 제자로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힘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서 나온다. 평정의 마음일 때 그 어떤 거친 욕이라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의 핵심은 참는 데 있다기보다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인내는 마음의 평정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대개는 현장(玄奘, 602~664)의 인욕이란 번역을 많이 쓰지만, 개인적으로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의 안인(安忍)이란 번역이 더 마음에 든다. 마음이 평안(安)할 때 욕됨을 참을(忍)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강경〉에는 붓다의 전생인 인욕선인(忍辱仙人)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가리왕은 인욕선인의 팔과 다리를 잘랐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반대로 잘린 팔과 다리를 제석천(帝釋天)이 붙여줬을 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를 가리켜 양무심(兩無心)이라 한다. 욕됨을 당했을 때나 도움을 받았을 때나 둘 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 무심이 곧 안(安)이고 여기에서 참다운 인(忍)이 나왔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욕을 들으면 쉽게 화를 내고, 반대로 칭찬을 들으면 즐거워한다. 그런데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상황 모두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였다. 결국 주연인 상대의 말에 따라 조연인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 것이다. 기분이 상할지 몰라도 그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놀아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모두가 평정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 속담에 참을 인(忍) 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세 번 참는 동안 그 마음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억지로 참으면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기 이전에 마음을 평정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욕은 단순히 참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安)을 통해 중생에서 부처로, 조연에서 주연의 삶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공부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